

# 함평군, 한우 암소 유전체분석사업 업무협약 체결

함평군(군수 이상익)은 최근 함평축산농협(조합장 김영주)과 한국종축개량협회(회장 이재윤)와 함께 함평군 축산업 발전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삼자 간 한우 개량에 관한 기술·정보의 공유를 통해 축산농가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우수한 종축의 선발로 경쟁력 있는 우량종축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함평군은 함평천지한우 브랜드 육성과 축산농가의 소득증대를 지원하고, 함평축협은 유전체 분석 정보를 활용한 우량 암소 선발과 유전적 개량 극대화를, 종개협은 유전체 분석을 통해 우량 축군 조성과 우량 암소에서 생산된 함평군 씨소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등 각 기관이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군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군과 축협, 종개협 3자간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

과 함께 사업 효과를 극대화해 우리군 한우 산업 발전과 축산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종축개량협회 이재윤 회장은 "함평축협과의 긴밀한 유대관계 구축으로 정확하고 신속한 개량정보 제공 서비스를 통해 함평군 내 축산농가들의 한우개량 속도 가속화를 위해 최대한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우량축군 조성을 위한 고능력암소 조기선발 협업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함평군 내 축산농가의 우량종축생산 확대를 통한 생산성 향상과 이로 인한 농가 소득 창출이 예상된다.

한편, 함평군은 우량암소 개체수를 늘려 개량 활성화를 추진할 목적으로 2024년을 한우 우수종자 개량의 원년으로 삼고, 한우 암소 유전체 분석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시행중에 있다. /이문수 기자



함평군(군수 이상익)은 최근 함평축산농협(조합장 김영주)과 한국종축개량협회(회장 이재윤)와 함께 함평군 축산업 발전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함평군 제공

영암군, '월출산 기찬 텃밭' 경작 도시민·영암군민 모집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월출산 기찬 텃밭'을 경작할 도시민과 영암군민을 4월30일까지 모집한다.

월출산 기찬 텃밭은 영암읍 회문리 녹암마을에 조성된 경작지. 한 구역에 16.5㎡(3~5평) 규모로 총 50 구역이 마련돼 월출산 경치를 보며 텃밭을 가꾸며 가족과 함께 영농체험을 할 수 있는 장소다.

영암군은 도시민에게 영농체험의 장을 제공해 농촌생활을 유도하고, 영농활동을 해보지 못한 영암군민에게 텃밭을 가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월출산 기찬텃밭을 조성했다.

텃밭 경작 참여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접수는 영암군 귀농귀촌팀에서 온·오프라인으로 받는다.

기찬 텃밭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061-470-2556에서 하고, 영암군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관련 내용을 볼 수 있다.

영암군 관계자는 "도시민과 영암군민에게 텃밭 농사 체험 기회를 제공해 건강하게 농촌생활을 해보고, 건전한 여가활동도 즐길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문수 기자

## 목포시, 시내버스 인수인계 계약안 통과

목포시는 목포시의회가 최근 시민불편 최소화 위해 결정한 '시내버스 운송사업 인수인계 계약 동의안' 가결을 환영했다.

시는 이번 시내버스 운송사업 인수인계 계약안(이하 인수인계 계약안)의 시의회 통과로, 시내버스 운영을 위한 필수사항들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로써 지난 2월 효율성 향상을 위한 노선개편 실행 이후, 지연된 노선 공영화·운영체계 전환·인프라 구축을 주요 골자로 하는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인수인계 계약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채무 금액이 확정된 노선권 양도양수 금액 210억과 중고버스 및 CNG충전소의 양도양수, 차고지와 정비소등 운영 인프라의 임대, 근로자 고용승계, 시내버스 비상운영 6월말 연장에 대한 협력 추진 등 주요 필수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노선권 매입 비용 210억은 대표이사나 주주들에게 배분되거나 개인 가수금 변제에 사용할 수 없는 것이라면서 태원·유진 대표이사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님을 재차 강조했다. 이 자금은 태원·유진 운수의 기업청산에 따른 근로자 퇴직급여 143억 등에 최우선 사용된다고 거듭 밝혔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목포형 대중교통시스템 구축은 민영버스회사가 공영·준공영 버스 회사로 혁신되는데 큰 의미가 있다. 더 이상 멈추지 않는 파업없는 시내버스, 시 예산이 절감되는 경제적인 시내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시는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지난 2월 말 시행된 시내버스 노선 개편 후속 절차로 5월 지방채 발행, 6월 노선권 인계인수, 7월~8월 새로운 운영체계 도입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게 된다고 밝혔다. /박성태 기자

## 신안군, 1004섬 친환경 낚시대회 개최

신안군이 오는 4월 20일 압해읍 송공항 해상에서 중금속 '납'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낚시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섬도다리낚시추진위원회가 주최하는 '제2회 1004섬 도다리낚시대회'로 참가자들은 납 대신 니켈 등 친환경 재질의 봉들을 사용해야 한다.

낚시는 최근 등산을 제치고 가장 많은 사람이 즐기는 레저 활동으로

부상했다. 그러나 바닷가 곳곳이 낚시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낚시 인구 증가로 납으로 만든 봉들의 사용량이 증가하며, 사용하고 그냥 버리는 낚시인들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낚시는 많은 사람이 즐기는 레저 활동이지만, 그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무시할 수 없

다"라며 "신안군은 친환경 재질의 낚시용품을 사용하는 낚시 행사를 지속해서 후원하며, 환경보호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오래전부터 낚시 허가제나 면허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이러한 제도 도입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신안군의 이번 대회 개최는 환경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으로 평가받을 만하다. /장흥근 기자

## 무안군, 생명사랑약국 확대

무안군(군수 김산)은 최근 자살예방을 위한 생명안전망 구축을 위해 약국 5곳을 '생명사랑약국'으로 추가 지정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추가된 곳은 무안읍 내래약국, 남악·오룡신도시 다나약국·바디엔약국·바른약국·오룡약국으로 현재 총 20개소가 생명사랑약국으로 지정돼 있다.

약사들은 의약품 복약지도 시 정신건강·자살위험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해 정신건강복지센터 서비스를 연계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김성철 무안군 보건소장은 "생명사랑 약국사업을 통해 군민의 탄탄한 생명 안전망을 구축하고 살기 좋은 무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민재 기자

## 강진군, 세계모란공원 봄맞이 정비 완료

강진군은 본격적인 봄철을 맞이해, 세계모란공원 일대 편의시설 및 부대시설 등을 정비하고 산천객 맞이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강진군청 산림과는 경관 개선 차원에서 수목 전정 및 잔디 예초, 제초 작업을 구석구석 실시해, 세계모란공원은 한층 깔끔하고 아름다운 자태를 되찾았다.

군은 이번 정비를 통해 잔디광장 개울 산책로, 강진만을 바라보는 전망 공간에 모란과 작약을 보완 식재하고, 꽃 조형물, 연못 무대 주변 흥가시 울타리 구간 전정을 통해 아름다운 공간을 재창출했다.

세계모란공원은 강진군 강진읍 남성리 산1-39번지 일원으로, 영랑생가 뒤편에 자리 잡고 있다. /박종욱 기자



광주 전투비행장 무안 이전 반대 범대위·무안군 의회·전남도의원(나광국·정길수)